昌 출마 비판 박근혜 향후 행보는

‘BBK 수사’ 지켜본 뒤 결정 가능성

李후보와 ‘감정의 골’ 깊어 갈등 해소 판단 일러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지원유세 나설 수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2일 이회창 전 총재의 무소속 출마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만을 놓고 보면 이명박 후보의 대선 행보에 천군만마의 힘이 되겠지만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대해서는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이 후보 측을 향해 “(이 후보와)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 “승자가 공천권을 갖고 무소불위로 휘둘러야 한다는 말이냐” “그야말로 구태정치, 무서운 정치”라고 말하는 등 아직도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으로 보여줬다.

특히 이날 한 석간 신문이 박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 ‘朴 “이명박 위해 활동”’이라고 제목을 뽑았다가 박 전 대표계 한 핵심의원으로부터 “언제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 있느냐”고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때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미봉 수준이어서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표가 당장 이 후보를 지원하는 행보에 나서기보다는 대선 정국을 관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이번 주 BBK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귀국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은 일단 오는 25~26일 대선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경선에서 진 사람으로서 깨끗이 승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엄청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공식 석상에 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누가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 후보의 ‘이 후보-박 전 대표-강재섭 대표 3자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고민은 김경준씨의 귀국 이후에도 정국이나 이 후보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박 전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선거 운동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한 측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유세도 지원하고, 본인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역시 “당원이니까 선거가 되면 당연히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의 강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 측은 이 후보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선 패배 후 지금까지 박 전 대표 측이 느끼는 피해 의식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칩거에 들어갔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문단 교수들과의 오찬을 위해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檢, “김경준 온다” 초긴장

고발인 조사 마무리·007 호송작전 준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이 임박하자 검찰은 12일 초긴장 상태 속에 예비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9일 첫 수순인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주말에도 대다수의 검사들이 사무실로 출근, 기록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정확한 송환 시점이 보안에 부쳐지고 호송팀이 다양한 항공편 옵션을 준비해 놓는 등 ‘007’ 수준의 호송작전이 진행 중인 동안 ‘대선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국내 수사팀 역시 발빠르게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현재 김씨 본인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여권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수사진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을 마무리하면 이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와 (주)다스 차명소유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측이 제기한 다양한 의혹과 이 후보측에서 이를 반박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규명도 이뤄진다.

김씨가 ‘주가조작용 실탄’으로 운용한 역외펀드 MAF에 이 후보의 공동소유 회사인 LKe뱅크 돈 150억원이 투입됐으며, 시세조종에 LKe뱅크 계좌가 사용됐다거나 이를 이 후보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신당측이 제기한 의혹들이다.

이밖에 LKe뱅크가 MAF에 투입한 돈이 세탁됐다거나 김씨가 횡령한 54억이 LKe뱅크 계좌로 유입됐다는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미국 연방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김씨의 단독 범행임이 분명하며 이 후보는 투자자일 뿐이고 MAF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김씨의 사금고처럼 운용됐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鄭, ‘국민속으로’… 버스 민심투어

첫 일정으로 충청 표심 공략 나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2일부터 버스민심투어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몽골기병단 민심대순례인 ‘몽골기병단’ 출정식을 갖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민심의 현장 속으로 파고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첫 방문지는 충청도로 잡았다. 이 지역 출신 이회창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대전·충남·충북 선대위 인사말을 통해 “충남, 충북이 지난 10년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비슷한 이름에 총리를 지내신 두 분 때문에 헷갈린다”며 같은 충남 출신의 이회창 후보와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정 후보는 “한 분은 지조와 일관성을 갖고 옳은 길을 걸어온 깨끗한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대쪽’이 아니라 소신과 원칙을 저버리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또 “이명박 후보는 다음주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명박 이회창 후보 모두 부패척결, 가족행복, 좋은 성장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뒤 “저는 시대정신인 ‘가족행복’을 열기 위한 행복의 전사로, 민주당과의 통합, 단일화 합의를 바탕으로 12월에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몽골기병단과 함께 13일 광주·전남·전북, 14일 강원, 15일 경기·인천, 16일 대구·경북, 17일 제주, 18일 서울 등을 누비며 민심 대장정을 이어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昌, TK표심 시간차 공략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朴心 구애’ 경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보수진영의 본거지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하루 간격을 두고 차례로 방문, 이 지역 표심잡기에 나선다.

두 후보의 TK 방문은 특히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구애경쟁’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12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경북 구미로 이동,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지난해 8월 30일 산업비전 정책탐사를 위해 지방을 순회하던 중 이 곳을 방문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 후보는 이어 오후에는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국민성공대장정 대구.경북대회’에 참석한 뒤 대구 동성로에서 젊은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일정은 이미 오래전 예정된 것이긴 하나 이회창 후보의 출마선언 직후 사흘간의 장고를 마친 뒤 첫 외부일정으로 TK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당의 전통적 텃밭인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신의 연고지인 대전·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지방순회에 나서는 이회창 후보도 13일 TK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TK지역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뒤 대구로 이동, 월남참전전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통보수’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인제, 단일후보 경쟁 시동

어제 광주 선대위 출범식 지지 호소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2일 광주시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범여권 단일후보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합신당과 민주당간 통합 및 후보단일화 논의를 위한 ‘4인 회동’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주로 직행,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범여권 단일후보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선대위 발대식 겸 당원 필승대회에 참석해 “아름다우면서도 치열한 대결을 통해 한나라당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5년간의 국정실패로부터 자유롭고 호남-충청-수도권을 잇는 서부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충청도 출신 후보라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할 통합민주당의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상천 대표(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 최인기 원내대표, 김경재 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 등 중앙당 선대위 및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통합선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행사장 밖까지 3천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로 가득찼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은 12일 오후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이인제 대선후보와 박상천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